

# ★백승호 국제법 최근 7개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2025년 합격 방법론 특강

## □ 개요

- 백승호 국제법 최근 7개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2025년 합격 방법론 특강은 2018년도 기출문제 ~ 2024년도 기출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해 합격에 최적화된 개별 수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강입니다.

## □ 강의 일정

- 8월 3일 토요일 19시~ 21시 30분

## □ 강의 특전

- 백승호 국제법 최근 7개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2025년 합격 방법론 실강 수강생에 한해 2025년 합격을 위한 개별 공부 방법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실강 수강생은 8월 10일 개강하는 답안지 작성 특강 제1회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답안지 작성 특강 제1회 시간을 통해 개별 국제법 실력 진단을 한 후 최적화한 개별 수험 전략을 조언해 드립니다.

## □ 주요 내용

	내용
01	· 2018년도 기출문제 ~ 2024년도 기출 출제 경향 분석
02	· 2025년 합격 방법론 강의
03	· 공부 방법론 개별 상담

## □ 공고: 적중 문제 예시

- 백승호 국제법 2024년 제3 순환 적중 문제 예시입니다. 2024년 제3 순환 수업 내용 만으로도 100%(통합논술 포함) 적중입니다. 문제의 적중도는 긴말 필요 없이 2024년 3순환 수강생들에게 직접 확인해 보세요.

기출문제	주요 쟁점
01 통합논술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문 1) (10점) 제네바 난민협약 제1조와 난민의정서 제1조</li> <li>· 2문 2) (10점) 외교보호초안 제8조 1항 &amp; 2항</li> <li>· 3문 2) (10점) 국가책임초안 제8조 &amp; 제16조·제19조</li> </ul>
02 통합논술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문의 1) (20점) 글래스고 기후 합의, 파리협정, 파리협정 세부 이행 규칙 등 세 가지 국제문서의 국제법 연원으로서 지위(형식적 연원: 관습과 조약 &amp; 실질적 연원) 및 효력(법적 구속력: 보편적 구속력 및 법적 효력: pre-law; para-law; post-law)</li> <li>· 2문의 1) (15점) &lt;제시문 2&gt;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국제법 이론(일원론과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EU 회원국 내에서 「유럽 기후법」의 지위(변형 및 수용: 직접 적용) 및 효력(직접 효력: 단순 수직적 효력과 전도된 수직적 효력 &amp; 위계: 헌법-법률-명령)</li> </ul>
03 외교원 전공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문 1) (20점) uti possidetis principle (현상유지원칙)</li> <li>· 1문 2) (10점) VCSST 제11조</li> <li>· 1문 3) (10점) VCSSPAD 제18조(분열 시 국가재산 승계) &amp; 제41조(분열 시 국가부채 승계)</li> <li>· 2문 1) (10점) 범죄인인도: 인도적 고려의 원칙</li> <li>· 2문 2) (10점) aut dedere aut judicare (인도 아니면 기소 원칙)</li> <li>· 2문 3) (10점) 헤이그협약 상 항공기 납치의 성립 요건</li> <li>· 3문 1) (20점) 제네바 4개 협약 공통 &lt;제3조&gt;와 제2 추가 의정서의 적용 범위 &amp; 비국제적 무력 충돌 상황에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 규칙: YLO 병사들이 부담하는 국제인도법 의무</li> <li>· 3문 2) (10점) 비 국제적 무력 충돌 상황에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 규칙: A국이 부담하는 국제인도법 의무(YLO 병사들에 포로 대우를 부여할 의무?)</li> </ul>
04 국제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문과 2문은 외교원 전공 평가 문제와 동일함</li> <li>· 3문 1) TBT 협정 제1조 &amp; 부속서 1 기술규정의 정의</li> <li>· 3문 2) TBT 협정 제2.1조</li> </ul>

- 다음은 올해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제의 적중도 판단을 위한 대표 예시입니다. 문제 적중도는 각자 판단해 보세요.

(▶2024년 백승호국제법 적중 모의고사, 총 40점) 아래 제시문을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제시문 1〉

1991년부터 시작된 '제1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은 1994년 정전 협정 체결로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1994년 이후 양국 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2020년 9월에 발발한 '제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은 아르메니아 우위를 변경하여 양국의 경계를 대체로 제1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발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켰다. 국제법상 소련이 영토주권을 보유하고 있던 시절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분쟁은 국내법상 행정 관할에 대한 다툼의 성격을 지녔다. 양국이 주권 국가로 등장한 1991년 이후에는 이 지역을 둘러싼 분쟁은 이제 국내법상 관할권이 아니라 국제법상 영토주권에 관한 것으로 규정된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양국의 영토적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고 이들 주장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인가? 먼저 아르메니아 측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 이 지역과 긴밀한 역사적·문화적 유대를 유지해 왔음을 내세운다. 더 중요한 근거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주민 대부분이 아르메니아계라는 사실이다. 1991년 9월의 나고르노-카라바흐 독립선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아르메니아 측 핵심적 주장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거주민의 민족자결권에 기초한다. 아제르바이잔은 영토적 완전성(territorial integrity) 원칙에 기초하여 아르메니아 측의 주장을 배척한다. 특히 연방국이었던 구소련 분열 과정에서 적용되었던 uti possidetis 원칙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관한 주장의 기초로 삼는다.



#### 〈제시문 2〉

식민주의와 국제법의 관계에는 다양한 논점이 존재한다. 식민 지배나 제국주의 시대 타 국가들의 활동 때문에 아직도 영토분쟁 및 획정, 문화재 반환, 강제노동, 민족 간 갈등 및 제노사이드 등 다양한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잠재적 분쟁 사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또, 비록 모든 사안이 식민주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뉠 수 있지만, 아직도 자치권이 없는 영토가 상당히 남아 있다. 따라서 식민주의는 국제법적으로 보았을 때, 과거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아직 해소되지 않은 잠재적 분쟁 발생 가능 사안이 수면 위로 올라와 국제법 현안이 되었을 때,

식민주의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안들에 대한 접근은 간단하지 않다. 식민주의적 사고에 따른 영토 취득이 만연했던 당시 현실과 현상을 맥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도 존재한다.

1) 국제법상 'uti possidetis principle'을 논하시오. (20점)

2) 일본이 독도에 주장하는 소유권 취득의 법적 요건을 설명하고 한국 관점에서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논하시오. (20점)

(▶2024년 백승호국제법 적중 모의고사, 총 50점) 국가승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78년 비엔나 협약에서는 이것을 영토 일부 이전(succession in respect of part of territory), 신생 독립국(newly independent state), 국가통합(합병과 병합)(uniting of states) 그리고 국가 분리(separation of a part or parts of a state)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다. 여기서 국가 분리는 분리독립(secession)과 분열(혹은 해체)(dissolution, disintegration) 양자 모두를 포괄한 개념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1983년 비엔나협약에서는 분리 독립과 분열을 각기 별개 상황으로 구분하여, 영토 일부 이전(transfer of part of the territory of a state), 신생 독립국, 국가통합, 분리독립(separation of part or parts of the territory of a state) 그리고 분열(dissolution of a state) 등 모두 다섯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1) 1978년 비엔나협약이 정한 국가승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조약의 승계를 논하시오. (30점)

2) 1983년 비엔나협약이 정한 국가승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국가재산(재산과 부채)의 승계를 설명하시오. (20점)

(▶2024년 백승호국제법 적중 모의고사, 총 50점) 항공기 납치 행위에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설명하고(30점) '항공기 불법 납치'와 '해적행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20점).<sup>1)</sup>

- 1) 다음은 2024년 3월에 발간된 국제법 신강(백승호 저) 745페이지 원문 그대로 내용입니다: 헤이그협약 목적상 항공기 납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문턱(threshold)을 넘어서야 한다(제1조): 첫째 항공기 납치 또는 점거가 힘(force)의 불법적 사용 또는 그 위협으로부터 발생하여야 한다. 둘째 항공기가 비행 중(while in flight) 납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상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불법 납치는 이 협약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여기서 '비행 중(while in flight)'은 탑승 후 외부의 모든 문이 닫힌 순간부터 승객들이 내리기 위해 그러한 문이 열리는 순간까지다. 다만 강제착륙(forced landing)일 때에 비행은 관계 당국이 항공기와 항공기 내 인원 및 재산에 대한 책임을 인수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제3조 1항). 셋째 불법행위는 기내탑승자(person on board an aircraft)가 저질러야 한다. 따라서 공항시설이나 비행 중·기착 중의 항공기에 대한 외부로부터 공격은 이 협약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이 문제는 1971년 몬트리올협약에서 규율한다. 넷째 항공기의 이륙 장소 또는 실제의 착륙장소가 등록국 영토 밖에 있는 경우에만 이 협약이 적용된다. 등록국만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순수한 국내 항공기 납치는 이 협약의 범위 밖에 있다.

# ★백승호 국제법 2025년 대비 답안지 작성 특강 (2024년 8월)

## □ 개요

- 백승호 국제법 2025년 대비 답안지 작성 특강은 국제법의 전 체계를 조망하면서 2025년 출제가 유력한 주제에 대해 답안지를 작성해 보고 기본 내용을 점검해 실전 답안 작성 실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입니다.

## □ 강의 일정

### - 사전 문제 배부

8월 9일, 16일, 23일, 30일 온라인 개별 배부

### - 미리 보기

한림법학원 실강 8월 10일, 17일, 24일, 31일 (시험 16:00~18:00; 강의 19:20~20:10; 20:20~21:10; 21:20~22:10)

### - 개별 강평

1인 (매주 30분) 학원에 비치된 시간표에 선착순 기입

## □ 강의 교재

- 다음 4종류의 자료가 제공됩니다: ① 기출문제 경향 분석 (2013년~ 2024년) ② 적중 모의고사 해제 ③ 적중 모의고사 ④ 모범답안 피드백 자료

## □ 강의 특징

- 2002년 이후 공개된 모든 기출문제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기출 문제 주제를 정확하게 훈련합니다.

- ① 사전 배부된 문제를 통해 홀로 쟁점을 검토해 본 후 ② 미리보기 특강을 통해 답안 작성에 필요한 국제법 쟁점을 답안 작성 쟁점 핵심 자료로 간략하게 그러나 빠짐 없이 검토하고 ③ 개별 강평을 통해 답안지를 문단별로 검토·수정한 후 ④ 모범답안 피드백 자료를 기초로 국제법론을 참고해 시험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자기만의 서브 노트를 작성합니다.

## □ 주요 내용

회차	내용
01	· 영토주권의 취득 · 영토주권의 변경: 국가승계
02	· 국제 영공법 · 국제 우주법
03	· 해양법 (Ⅰ)
04	· 해양법 (Ⅱ)